

# 자음군 분류와 자음자질 (I)

—자음접변을 중심으로—

박 창 원\*

## I

1.1. 본고는 현대국어 자음의 자질들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현대국어 자음의 자질을 설정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잘 알려진 음운현상 중의 하나인 자음접변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국어에서 자음접변은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음접변의 방향을 통해서 자음들은 어떠한 자음군으로 나눌 수 있는가? 자음군(혹은 자음)은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으로 보아 어떠한 자질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초점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음절말 7자음체계」가 자음접변의 역행완전동화에 의해, 자음에 대한 일차원적 음운론적 강도가 자음접변의 역행동화에 의해, 재조명될 것이다.

1.2.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음운변화를 하는 자음들은 적어도 하나의 자질을 공유할 것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변화를 입는 쪽과 받은 쪽은 (focus and structural change)은 환경(determinant)을 유표로 하는 자연부류를 이룰 것이다. 즉

$A \rightarrow B/X-Y$

에서 'X, Y사이의 A(XAY)'라는 통합관계에서 (음소 혹은 자질) B로 변하는 교체계열(paradigm) (음소 혹은 자질) A는 적어도 하나의 자질을 공유하는 자음군으로 묶여질 수 있고, 'X 혹은 Y' 자질에 의해 B로 변하는 A는 'X 혹은 Y'를 유표로 하는 자음군으로 'X 혹은 Y'에 무관

\* 碩士課程(國語學 專攻),

한 여타의 자음군과 다른 부류들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 본고에서 사용한 자음분류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현대국어의  $C_0VC_1C_2VC_0^{1)}$ 에서 실현되는  $C_1$ 의 교체계열을 추출하여<sup>2)</sup> 자음군을 분류하고, 분류된 자음군 혹은 자음에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을 고려하여 현대국어 자음의 자질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2.1.  $C_1$ 의 위치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sup>3)</sup>는  $C_2$ 의 위치에 어떤 자음이 있느냐에 따라 제약이 가해 진다.

첫째  $C_2$ 의 위치에 ㄱ이 올 경우  $C_1$ 의 ㄴ, ㄷ, ㄹ 등은 ㄱ으로 실현되고(방향 1)

예 1) 단감→당감, 눈곱→농곱  
 꿈결→꿍결, 김꾼→깡꾼  
 강가→깡까, 방굴→방꿍

$C_1$ 의 ㅂ, ㄸ, ㅅ, ㅈ, ㅊ 등은 ㄱ으로 실현된다(방향 2).

예 2) 밥그릇→박그릇, 짐계 →직계  
 날같이→낙같이, 끝가지→꼭가지  
 옷걸이→옥걸이, 옷고름→옥고름

- 
- 1)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음운현상이 달라 지겠지만 본고에서의  $C_1$ 과  $C_2$ 사이의 경계는, 복합어 경계이지만 P-rule과 M.P. rule(혹은 NGP의 sandhi rule)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거나, 두 규칙이 일치하는 경계 다시 말하면 automatic, allophonic and non-phomemic boundary이다.
  - 2)  $C_1$ 의 교체계열은 지역간에 혹은 사회계층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남부지방+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본고의 자음집변은 강제성이 강하고, 「중부지방+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의성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도 무시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 3) ㄷ과 ㅎ에 대해서는 따로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특히 ㄹ은 자음군단순화 및 형태소경계에 따른 glottal stop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본고에서는 그 음가에 대해서만 약술될 것이다.

젓가슴→적가슴, 짓거리→직거리

짹같이→작같이, 속곳 →숙곳

C<sub>2</sub>에 ㄱ이 있을 경우 동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ㄱ으로 동화하는 자음군과 ㅇ으로 동화하는 자음군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군> ㄴ, ㄹ, ㅇ.

<제 2군> ㅂ, ㄷ, ㅅ, ㅈ, ㄱ.

둘째 C<sub>2</sub>의 위치에 ㅂ이 올 경우 C<sub>1</sub>의 ㄱ, ㅇ 등은 변하지 않고(방향 3)

예 3) 떡방아→떡방아, 막벌이→막버리.

땅바닥→땅바닥, 강바람→강바람.

C<sub>1</sub>의 ㅂ, ㅅ, ㅈ, ㄷ 등은 ㅂ으로 동화하고(방향 4)

예 4) 곧바로→꿍바로, 돋보기→뚝보기.

덧바지→뎃바지, 짓밟다→집밟다.

젓말이→젓빠리, 꽃밭 →꿍밭

밤벌이→밤버리, 밤벌레→밤벌레

C<sub>1</sub>의 ㄴ, ㄹ 등은 ㄹ으로 동화한다(방향 5).

예 5) 돈벌이→뚝벌이, 신발→심발.

몸부림→뚝부림, 봄비→뚝비.

C<sub>2</sub>에 ㅂ이 놓일 경우 조음위치의 이동이 일어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 1군>은 ㅇ과 ㄴ, ㄹ으로 <제 2군>은 ㄱ과 ㅂ, ㄷ, ㅅ, ㅈ으로 나누어진다.

<제 3군> ㅇ.

<제 4군> ㄴ, ㄹ.

<제 5군> ㄱ.

<제 6군> ㅂ, ㄷ, ㅅ, ㅈ.

셋째 C<sub>2</sub>에 ㄷ이 놓이면 C<sub>1</sub>의 ㄱ, ㅂ, ㅇ, ㄹ은 변하지 아니하고(방향 6)

- 예 6) 목덜미→목덜미, 색돌 →색돌.  
 곱똥 →곱똥 , 남덩이→남덩이.  
 땅덩이→땅덩이, 통닭 →통닭.  
 몸뚱이→몸뚱이, 섬돌 →섬돌.

C<sub>1</sub>의 ㄷ, ㅅ, ㅈ 등은 ㄷ으로 실현되고(방향 7)

- 예 7) 말똥 →말똥 , 날되 →날되  
 옷도둑→온도둑, 빗듣다→빌듣다.  
 빗돈 →빌돈 , 낮도둑→날도둑

C<sub>1</sub>의 ㄴ은 ㄴ으로 실현된다(방향 8)

- 예 8) 반달→반달, 단돌→단돌

C<sub>2</sub>에 ㄷ이 올 경우 <제 6군>은 ㅂ과 ㄷ, ㅅ, ㅈ으로, <제 4군>은 ㄴ과 ㅁ으로 나뉘어 진다. 또한 위치의 이동이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의<sup>2)</sup>여부로써 <제 3군>과 ㅁ이, 그리고 <제 5군>과 ㅂ이 한 부류로 묶여진다.

- <제 7군> ㅂ.  
 <제 8군> ㄷ, ㅅ, ㅈ.  
 <제 9군> ㄴ.  
 <제 10군> ㅁ.  
 <제 11군> ㅂ, ㄱ.  
 <제 12군> ㅁ, ㅎ.

네째 C<sub>2</sub>의 위치에 ㄴ이 올 경우 C<sub>1</sub>의 ㄱ, ㅎ은 ㅎ으로 실현되고(방향 9)

- 예 9) 저녁놀→저녁놀, 속눈썹→송눈썹.  
 땅냄새→땅냄새, 뽕나무→뽕나무.

C<sub>1</sub>의 ㅂ, ㅁ은 ㅁ으로 실현되고(방향 10)

- 예 10) 밤냄새→밤냄새, 앞눈→암눈.  
 땀내 →땀내 , 밤눈→밤눈.

C<sub>1</sub>의 ㄴ, ㄷ, ㅅ, ㅈ은 ㄴ으로 실현되므로(방향 11)

- 예 11) 반나절→반나절, 단내 →단내.  
 밀밭이→민밭비, 반내다→반내다.  
 잣나무→잔나무, 덧날 →던날.  
 젓내 →전내 , 빗내다→빈내다.

변화하는 방향에 의해서 <제 3군>과 <제 5군>이, <제 7군>과 <제 10군>이, 그리고 <제 8군>과 <제 9군>이 하나의 자음군으로 묶여질 수 있다.

- <제 13군> ㄱ, ㅎ.  
 <제 14군> ㅂ, ㅍ.  
 <제 15군> ㄷ, ㅅ, ㅈ, ㄴ.

다섯째 C<sub>2</sub>의 위치에 ㅁ이 올 경우 C<sub>1</sub>의 ㄱ, ㅎ은 ㅎ으로 실현되고(방향 12)

- 예 12) 떡메→땡메, 먹물→멍물  
 땅마지기→땡마지기.

C<sub>1</sub>의 ㅂ, ㅍ, ㄷ, ㅅ, ㅈ, ㄴ은 ㅁ으로 실현되므로(방향 13)

- 예 13) 밥물 →뵵물 , 밥맛 →뵵맛.  
 밤마다→뵵마다, 감맛 →감맛.  
 밀머리→뵵머리, 끝물 →꿈물.  
 옷무늬→옴무늬, 빗맞다→뵵맞따.  
 젓먹이→젼먹이, 젓무덤→젼무덤.  
 단물 →담물 , 돈맛 →돔맛.

<제 13군>이외의 자음 즉 <제 14군>과 <제 15군>이 하나의 자음군이 된다.

- <제 16군> ㅂ, ㅍ, ㄷ, ㅅ, ㅈ, ㄴ.

2.2. 자음동화의 방향은 음절위치로 볼 때 오로지 역행동화만이 가능

하다. 즉  $C_0VC_1C_2VC_0$  구조에서  $C_1$ 이  $C_2$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C_2$ 는  $C_1$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음소위치에 의한 제약 외에 음소상호간에 내재하는 제약이 있다. 음소(군)에 따라서는  $C_2$ 의 위치에 놓여,  $C_1$ 의 위치에 놓인 다른 음소를 동화시키기는 하지만, 음소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실현될 때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본래대로 실현되는—자음동화력의 어떤 위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에는 조음위치에 의한 위계와 조음방법에 의한 위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제16군〉은 〈제13군〉에 의해 완전역행동화가(방향 1 및 방향 2) 일어나지만, 그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고, 〈제15군〉은 〈제14군〉에 의해 완전역행동화(방향 4 및 방향 5)가 일어나지만, 그 역방향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제 8군〉은 〈제 9군〉에 의해 완전역행동화(방향 11)되지만, 그 역방향은 일어나지 않고, 〈제 7군〉은 〈제10군〉에 의해 완전역행동화(방향 13)되지만 그 역방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는 다르게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의 위계와는 상관없이 음소연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부류가 있다. 즉  $C_0VC_1C_2VC_0$ 의 구조에서  $C_2$ 의 위치에 놓였을 때는  $C_1$ 에 놓인 음소를 불완전동화시키고, 그 위치가 바뀌면 동화주었던 음소가 피동화주었던  $C_2$ 에 놓인 음소에 의해 불완전동화하는 것이다. 〈제 4군〉은 〈제 5군〉에 의해  $\delta$ 으로 실현(방향 1)되는 반면, 〈제 5군〉은 〈제 4군〉에 의해  $\delta$ 으로 실현(방향 9 및 방향 12)되고, 〈제 9군〉은 〈제 7군〉에 의해  $\sigma$ 으로 실현(방향 5)되는 반면 〈제 7군〉은 〈제 9군〉에 의해  $\sigma$ 으로 실현(방향 10)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음점변의 방향으로 자음동화력의 위계<sup>4)</sup>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4) phonological strength에 대한 논의는 Hooper(1976), 이병근(1977) 이승재(1980) 참조.

조음위치의 자체내에 자음동화력의 위계가 있으며, 동일한 조음위치 일 경우에는 조음방법상의 위계가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사이에는 일직선적인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제 1군〉에서부터 〈제 16군〉까지 분류된 자음군과 〈방향 1〉에서부터 〈방향 13〉까지의 동화방향을 토대로 현대국어의 자음체계를 정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C_1$				$C_2$	→
$C_1$	ㄷ	ㅅ	ㅈ	ㅂ	ㄱ	
$C_2$	ㄴ	ㅁ	(ㅇ)			

※  $C_1$ 의 위치를 왼쪽위,  $C_2$ 의 위치를 오른쪽아래에 놓으면 →의 방향은 자음동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의 방향을 역행하는 자음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어떤 위치에서 동화주(determinant)를 잡으면 〈왼쪽이고 위〉의 공간이 완전동화하는 자음군이고 〈왼쪽이거나 위이지만 왼쪽이고 위는 아닌〉공간이 불완전동화하는 자음군이 된다. 〈오른쪽이고 아래〉인 공간은 동화력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음군이 된다. 예를 들어  $C_2$ 의 위치에 모일 경우 〈왼쪽이고 위〉인 〈제 16군; ㅂ, ㅁ, ㅅ, ㅈ, ㄷ, ㄴ〉은 완전동화하는 자음군이고, 〈위쪽이지만 오른쪽〉인 〈제 5군; ㄱ〉은 ㅇ으로 불완전동화하며, 〈왼쪽도 윗쪽도 아닌〉〈제 3군; ㅇ〉은 동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2.3. 자음접변이 음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자음과 자음의 통합관계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일진대 〈제 8군; ㄷ, ㅅ, ㅈ〉끼리의 통합관계에서는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C_1$ 의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체계 즉 음절말자음체계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언어에서  $C_1$ 의 위치에 나타나는 음성학적 자음의 수는  $C_2$ 의 그것보다 훨씬 적고, 또한 음절초에서는 대립을 이루다가도 음절말의 위치에서는 중화<sup>5)</sup>되어 즉 「극도의 내파화(귀착)」가 일어나<sup>6)</sup> 「음절말이

5) 김차균(1976) 참조.

6) 허웅(1975), 이기문(1972) 참조.

나 어절말의 자음체계는 7종성체계<sup>7)</sup>가 된다.

이러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음절말과 어절말’에서 중화되는 자질은 무엇이고, 중화되지 않은 자질은 무엇인가?

둘째 ‘음절말과 어절말’에서 내파화가 일어난다면 모든 자음의 내파화정도가 인접음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가?

셋째 음절말에서의 내파화정도 내지는 중화조건과 어절말에서의 내파화 내지는 중화조건이 과연 동일한 것인가?

본고는 「내파화」에 대해 음성학적인 설명을 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국어의 자질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할 단계가 되지 못하기에 상론은 후일로 미루고, 단지 다음의 예로써

예 14) 옷→운

옷+이→오시, 옷+도→운도

옷+안→오단, 옷+깃→옥깃

옷+사이→옷사이.

적어도 현대국어의 공식적인 입장<sup>8)</sup>에서 볼 때, 형태소경계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음운이 위치가 음절말이나 어절말이나에 따라 내파화내지는 중화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 14)의 ‘옷+사이’의 종성 사이 ㄷ으로 중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조음음성학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으로 상

7) 이기분(1972) 참조.

8) 현대국어의 철자법상으로는 종성 ㄷ으로 끝난 체언은 그 예를 찾기 힘든 것 같다. 국어사의 어느 시기에 어말 ㄷ이 copula나 nominative i 앞에서 s로 변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낳게 한다. 현대국어의 경우 외래어의 발음에서 어말 t가 copula나 nominative i 앞에서 s로 발음되는 것이 발견된다.

예) out; 아울+이(냐?)→아우시(냐?)

beanut; 비나스



이한 음운이 실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역으로 조음위치의 이동이나 조음방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음운의 실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C_0VC_1C_2VC_0$ 의 구조에서  $C_1$ 과  $C_2$ 의 조음사이에 위치나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C_1$ 과  $C_2$ 는 동일한 음운인 것이다. 이러한 조음기관상의 원리를 근거로 ‘옷+사이’의 어말  $\text{ㅅ}$ 은  $\text{ㄷ}$ 으로 중화하지 않고,  $\text{ㅅ}$ 그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화에는 <제 8군;  $\text{ㅅ}$ ,  $\text{ㄷ}$ ,  $\text{ㅈ}$ > 자음 상호간에도 확대된다.

- 예 15) 옷+지→웃지, 곧+지→꿇지, 빛+장이→빛장이  
 옷+사이→웃사이, 돌+습니다→뚫습니다. 젓+소→젓소  
 옷+도둑→온도둑, 끝+돈→끝돈, 낮+도둑→날도둑.

이들은 화자가 의식적으로 형태소를 의식하지 않는 한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제 9군>끼리의 결합에서는 음절위치에 따라  $C_1$ 의 위치가  $C_2$ 에 완전동화되어,  $\text{ㅅ}$ ,  $\text{ㅈ}$ 은  $\text{ㄷ}$ 앞에서  $\text{ㄷ}$ 으로,  $\text{ㅅ}$ ,  $\text{ㄷ}$ 은  $\text{ㅈ}$ 앞에서  $\text{ㅈ}$ 으로,  $\text{ㅈ}$ ,  $\text{ㄷ}$ 은  $\text{ㅅ}$ 앞에서  $\text{ㅅ}$ 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자음동화의 규칙에는 다음이 추가된다.

여섯째  $C_2$ 의 위치에  $\text{ㄷ}$ 이 올 경우  $C_1$ 의  $\text{ㄷ}$ ,  $\text{ㅅ}$ ,  $\text{ㅈ}$  등은  $\text{ㄷ}$ 으로 동화한다. (방향 14)

일곱째  $C_2$ 의 위치에  $\text{ㅈ}$ 이 올 경우  $C_1$ 의  $\text{ㄷ}$ ,  $\text{ㅅ}$ ,  $\text{ㅈ}$  등은  $\text{ㅈ}$ 으로 동화한다. (방향 15)

여덟째  $C_2$ 의 위치에  $\text{ㅅ}$ 이 올 경우  $C_1$ 의  $\text{ㄷ}$ ,  $\text{ㅅ}$ ,  $\text{ㅈ}$  등은  $\text{ㅅ}$ 으로 동화한다. (방향 16)

$C_1$ 의 위치 즉 음절말위치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국어의 총자음수는  $\text{ㅂ}$ ,  $\text{ㅅ}$ ,  $\text{ㅈ}$ ,  $\text{ㅊ}$ ,  $\text{ㅋ}$ ,  $\text{ㆁ}$ ,  $\text{ㄷ}$ ,  $\text{ㄱ}$ ,  $\text{ㅇ}$ ,  $\text{ㄴ}$ ,  $\text{ㄷ}$ ,  $\text{ㄹ}$  등 9개이며, 단일자음앞에서

9)  $\text{ㅅ}$ 이 음절말위치에서  $\text{ㄷ}$ 으로 중화했다가 후속하는  $\text{ㅅ}$ 의 영향으로  $\text{ㅅ}$ 으로 동화한다는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text{ㅅ}$ 은 실현되는 것이니까.

실현가능한 최대의 자음수는 7개가 된다. 어절말위치<sup>10)</sup>에서는 ㅅ, ㅈ 등의 내파화가 일어나 7종성만이 실현되는 것이다.

2.4. ㅎ은 C<sub>2</sub>의 위치에서 C<sub>1</sub>의 ㅂ, ㄷ, ㅈ, ㅊ 등의 자음과 융합되어 격음으로 조음된다. C<sub>1</sub>의 위치에 놓였을 때는, C<sub>2</sub>의 ㅂ, ㄷ, ㅈ, ㅊ 등을 격음화하고, C<sub>1</sub>의 위치에는 C<sub>2</sub>에 동화된 자음이 조음된다.

- 예 16) 종고 → 죽코(ㄹ조코)<sup>11)</sup>  
 종지 → 좃치(ㄹ조치)  
 종도록 → 좃도록(ㄹ조토록)  
 (비교) 종소 → 좃소

ㅎ은 선행 혹은 후행하는 자음을 격음화시키고, 후행하는 모든 자음에 의해 동화하는 <제 8 자음군; ㄷ, ㅅ, ㅈ>등과 자음동화의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음동화의 방향으로 <제 8 자음군>에는 ㅎ을 추가할 수 있고, 또한 ㅎ에 의해 격음화가 가능한 자음군을 추출할 수 있다.  
 <제 17 자음군> ㅂ, ㄷ, ㅈ, ㅊ.

### III

#### 3.1. 국어의 자음들은 [+cons]의 자질을 가진다.<sup>12)</sup>

- 10) '젓+어미→저더미, 옷+안→오단'의 예에서 보듯이 어절말이 아닌 위치에서도 ㅅ, ㅈ 등은 중화를 일으킨다. 형태소경계와 관련된 중화의 조건을 명확하게 밝힐 여유가 없는 본고에서 편의상 사용했다. 다른 자리에서 수정될 것이다.
- 11) C<sub>1</sub>에 ㅎ이 있었을 경우에는 '죽코ㄹ조코' 등이 변이형을 이루지만, '말기코, 매부리코' 등에서는 '말기코, 매부리코' 등이 변이형을 이루는 예는 없는 것 같다.
- 12) [-cons]자질이 ㅅ, ㄷ, ㅈ(특히 ㅅ) 앞에서 ㅅ, ㄷ, ㅈ으로 생성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ㅎ이 [+cons]의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국어의 ㅎ이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단순한 Approximant로서 다음에 오는 소리의 무성대응음(P. Ladefoged; 1975 p. 55)이 아니므로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무성모음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

ㅂ ㅅ ㅈ ㅊ ㅋ ㆁ ㄱ ㆁ  
 cons + + + + + + + + +

제 II 장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ㄱ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음소연결의 제약에서 해결된다. CoVCGV의 구조에서 C의 위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cons]뿐이므로 ㄱ도 역시 [+cons]의 자질을 가진다(예; 오려고). 그리고 C<sub>2</sub>의 위치에 ㄱ이 있을 경우 C<sub>2</sub>의 ㄱ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C<sub>1</sub>에 ㄱ이 오거나 모음이 바로 연결되는 음소연결뿐이다. C<sub>0</sub>VC<sub>2</sub>VC<sub>0</sub>이거나 C<sub>0</sub>VC<sub>1</sub>C<sub>2</sub>VC<sub>0</sub>에서 C<sub>1</sub>이 ㄱ이거나이므로 ㄱ은 모음과 같은 환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ㄱ은 [+cons]자질 이외에 [+voc]을 자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3)</sup>

ㅎ은 C<sub>1</sub>의 위치에서 C<sub>2</sub>와 융합하거나 C<sub>2</sub>의 위치에서 C<sub>1</sub>와 융합하여 C<sub>2</sub> 혹은 C<sub>1</sub>자음을 격음화하므로 [+asp]의 자질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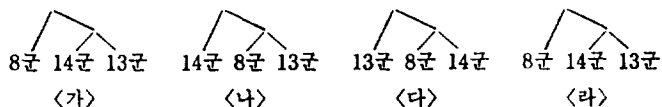
〈제 1군; ㄴ, ㅁ, ㄹ〉과 〈제 2군〉 ㅂ, ㅅ, ㅈ, ㅊ, ㅋ은 조음방법상의 차이 즉 비강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변별되므로 [nasal]에 의해 두 자음군은 구분된다. ㄱ, ㅎ 등도 비강이 열리지 않는다.

ㅂ ㅅ ㅈ ㅊ ㅋ ㆁ ㄱ ㆁ ㄷ  
 cons. + + + + + + + + +  
 voc. - - - - - - - - +  
 asp. - - - - - + - - -  
 nas. - + - - - + - - + -

3.2. 위치에 의해 〈제 8 자음군〉 〈제 13자음군〉 〈제 14자음군〉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4가지이다. (앞으로는 8군, 13군, 14군으로 약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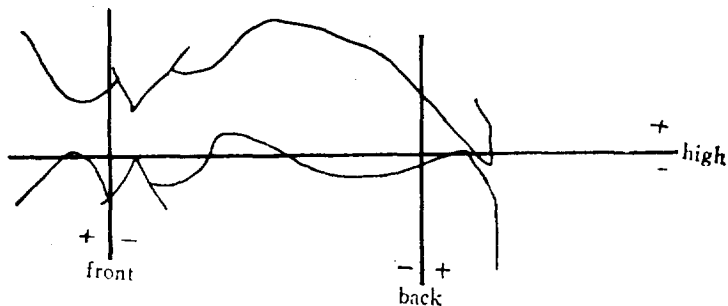
13) ㄱ이 [+voc]을 가지고, 모음과 같은 환경을 이루고 있었음은 중세국어 자료의 ㄱ 탈락규칙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예) 물+과→물와, 혀+과→혀와, 입시울+과→입시울와,



자음동화력의 강도에서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14군>을 따로 설정하고, <8군>, <13군>을 구분하는 <나>는 자음동화의 방향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피동화주에 촛점을 두면 <가>, 동화주에 촛점을 두면 <다>, 구강의 단순한 수평적 위치에 촛점을 두면 <라>방법이 타당한 것이 된다. 그런데 구강의 수평적 위치에만 의할 경우  $\alpha$ 이 <13군>에 속하게 되므로 자음동화의 방향을 <8군>과 같이 하는 언어사실과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국어의 자음자질의 설정은 수평적 분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분류—수직적 차원에서의 분류도 필요하게 된다.<sup>14)</sup>

수평적으로는 공기가 혀파에서 구강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도중에 구강에서 조음되는 위치와 자음동화의 방향을 고려하여 3자음군으로 나눌 수 있고,<sup>15)</sup> 수직적으로는 입술의 폐쇄위치와 연구개의 폐쇄지점을 기준으로, 조음위치가 그 상부이거나 구개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과 구분하면(아래의 구개도 참조)<sup>16)</sup>



14) <가> <다> 방법에 의하더라도 두가지 차원에서의 분류가 필요하게 됨은 마 찬가지이다.

15) 자질설정을 2분법에 의할 경우 너무 많은 자질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비경제적이다.

16) High자질을 평소위치(neutral position)에서 혀가 올라와 조음되는지의 여부로써 구분한 것은 Chomsky & Halle(1968) p. 304 참조.

국어의 자음자질은 다음과 같이 된다.

	ㅂ	ㅅ	ㄷ	ㅌ	ㅈ	ㅊ	ㅍ	ㅎ	ㄱ	ㅇ	ㄴ
cons	+	+	+	+	+	+	+	+	+	+	+
voc	-	-	-	-	-	-	-	-	-	-	+
asp	-	-	-	-	-	-	+	-	-	-	-
nas	-	+	-	-	-	+	-	-	+	-	-
high	-	-	+	+	+	+	+	-	-	+	-
front	+	+	-	-	-	-	-	-	-	-	-
back	-	-	-	-	-	-	+	+	+	-	-

3.3. [+high]자질을 가진 자음과 [-high]자질을 가진 자음이 음운론적 기능을 달리했었음은 국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음운현상인 음라우트현상과 근탈락현상에서 확인된다. 비전설모음이 전설모음에 의해 전설모음화하게 되는 현상이 개재자음의 종류에 따라 즉 [+high]자질을 가진 자음이 개재하게 되면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다. (물론 개재자음에 의한 제약외에도 선행하는 모음 혹은 형태소 종류 및 음절수에 의한 제약도 있다)

똥+이→멩이      밥+이→베비  
 뭉+이→에미      대목+이→대메기

간+이→간이 (\*갠이)  
 쌀+이→쌀이 (\*쌔이)  
 못+이→못이 (\*멧이)  
 솔+이→솔이 (\*썰이)  
 젓+이→젓이 (\*좃이)  
 꽃+이→꽃이 (\*꺄이)

용언활용이나 복합어형성에서 ㄱ이 탈락하는 환경이 후속자음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의 예도 ㄴ, ㅅ, ㅈ, ㄷ 이 하나의 자연부류로써 동일한 음운론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말하는 것이다.<sup>17)</sup>

17) 이러한 현상에는 형태소의식에 따라 (화제의 촛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 예 18) 울+든지 말+든지→우든지 마든지  
 불+지→부지 울+지→우지  
 불+소→부소 울+소→우소  
 울+느냐→우느냐, 불+느냐→부느냐.  
 불+젓가락→부젓가락  
 불+손 →부손  
 솔+나무 →소나무  
 불+도덕 →부도덕  
 (비교) 솔+방울 →\*소방울  
 불+개미 →\*부개미  
 물+맛 →\*무맛

3.4. 위치에 따라서 동화될 주교받는 ㄷ, ㅅ, ㅈ과 음절말위치에서 다른 자음으로 동화하면서 후속폐쇄음을 격음화시키는 ㅎ 등은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으로 어떤 자질로 구분될 수 있는가?

ㅅ은 혀앞과 입천장의 중간부분에 의해 마찰을 일으키고, ㅈ은 ㅅ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음되는데 입천장에 닿았다가 벌어지면서 마찰을 일으킨다. ㄷ은 혀끝이 치조에서 폐쇄를 일으킨다. 그리고 ㅎ은 후두의 마찰을 일으키므로 4자음이 변별될 수 있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ㅅ	ㅈ	ㄷ	ㅅ	ㅈ	ㄷ	ㅎ	ㄱ	ㅇ	ㄴ
cons	+	+	+	+	+	+	+	+	+	+
voc	-	-	-	-	-	-	-	-	-	+
asp	-	-	-	-	-	-	+	-	-	-
nas	-	+	-	-	-	+	-	-	+	-
high	-	-	+	+	+	+	+	-	-	+
front	+	+	-	-	-	-	-	-	-	-
back	-	-	-	-	-	-	+	+	+	-
plosive	+	+	+	-	+	+	-	+	+	-
strident	-	-	+	+	-	+	-	-	-	-

의미론적 제약이 가해져 많은 예외가 생긴다.

예) 불+씨→불씨, 물+수건→물수건, 굴+젓→굴젓, 불+놀이→불놀이  
 말+도둑→말도둑.

그리고 차용어인 경우 ㄷ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예) mild sun→마이드선.

## IV

4.1. 언어에 종족과 지역 및 시간을 초월하는 규칙이나 체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언어사실을 선형적으로 가정된 체계나 규칙에 의해 설명한다는 것은, 선형적으로 가정된 규칙이나 체계에 의해 개별적인 언어사실이 왜곡될 위험성이 내포되게 된다. 언어의 보편성은 개별적인 언어의 추상화된 총체이지, 개별적인 언어가 보편성의 진부분집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언어일지라도 다른 언어의 모든 특징을 전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본고는 국어의 음운현상을 다른 언어에서 밝혀진 자질로써 설명하기 보다는 국어의 음운현상을 통해서 자음군을 분류하고, 자음들에 대한 자질을 부여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물론, 현상으로써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성을 무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자음접변만으로 설정된 본고의 자음군이나 자음자질들은 다른 음운현상을 통해서( $C_0VC_1C_2VC_0$  외에  $C_0VC_3VC_0$ ,  $C_0VC_4$ ,  $C_5VC_0$ 의 분석을 통해서), 또한 자음의 본질적인 조음음성학적 특징을 정밀히 분석함으로써, 수정되고, 심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2. 현대국어의 자음접변의 방향은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에 의한 일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위치 및 방법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원적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동화의 방향은 [+high](=중자음)자질을 가진 자음이 [-high](변자음)자질을 가진 자음에 의해 역행동화되는 외에 [+high]자질을 가진 자음끼리도 역행완전동화가 일어나므로 현대국어의 음절말자음체계는 음성적으로 9개가 되며, 단일자음앞에서 실현될 수 있는 최대의 자음수는 7개가 된다. 그리고 어절말위치에서는 내파화 내지는 중화가 일어나 7중성체계가 된다.

자음의 자질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우선 조음위치의 수직적 분류에 의해  $[\pm high]$ 로 구분하고, 수평적 분류에 의해  $[\pm front]$   $[\pm back]$ 으로 3구분하였다. 그리고 비음성, 파열성, 마찰성, 대기성에 의해 자질구분이 필요함을 보았다. 본고에서 논의된 자질로 자음점변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규칙 1)  $C \rightarrow [+nasal] / \text{---} [+nasal]$   
 규칙 2)  $[+high] \rightarrow \begin{bmatrix} -high \\ \alpha position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high \\ \alpha position \end{bmatrix}$   
 규칙 3)  $[+front] \rightarrow [+back] / \text{---} [+back]$   
 규칙 4)  $[+high] \rightarrow \begin{bmatrix} \alpha plosive \\ \alpha strident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high \\ \alpha plosive \\ \alpha strident \end{bmatrix}$

### 참 고 문 헌

- 김진우(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 9-2.  
 김차균(1976), "국어의 자음점변", 「언어학」 1.  
 이기문(1972), 개증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병근(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충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허 응(1975),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Publishers.  
 Clayton, M.L. (1981), *Word Boundaries and Sandbi Rules in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57-3.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Marcourt Brace Jovanovich, Inc.  
 Malmberg, B. (1963), *Phonetics*, Dover Publication, Inc.